



(서울보건대학, 대한간호학회지 전 출판위원장)

PubMed

(서울보건대학, 대한간호학회지 전 출판위원장)

1. MEDLINE/PubMed

대한간호학회지(영문명: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또는 Taehan Kanho Hakhoe chi)는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(NLM)으로 부터 2004년 6월 29일자로 MEDLINE/PubMed에 등재되었음을 통보 받았다.

- 2003년 9월 신청서를 제출하고 10개월 만에 얻은 기쁜 소식이다.
- 대한간호학회지를 MEDLINE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은 창간호 발간이후 33년 만에 이루어진 업적이다.
- 국제적인 학술지로 인정받기까지 대한간호학회지 창간호 발간부터 전체 회원 및 임원진, 출판위원, 심사위원의 노력은 양적, 질적, 규격표준화, 정보화, 국제화 등으로 지속적으로 기울여져 왔다.

2.

○ 창간호 발간

1970년 4월 18일 발기총회를 개최(회원수:264명)하고, 동년 12월 20일 간호학회지(The Journal of Nurses Academy Society) 창간호를 발간(게재논문:11편)

○ 학회지 명칭 변경

1998년 3월호(제28권 1호)부터 대한간호학회지(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)로
학회지명 변경

○ 양적 성장(게재 논문의 양적 팽창으로 연간 학회지 발간 횟수 및 논문수 증가)

1970년~1972년(3년간) 년1회

1973년~1984년(12년간) 년2회

1985년~1991년(7년간) 년3회

1992년~1998년(7년간) 년4회

1999년 (1년간) 년6회(국문판 5회, 영문판 1회)

2000년~2002년(3년간) 년7회(국문판 6회, 영문판 1회)

2003년~현재 (2년간) 년8회(국문판 6회, 영문판 2회)

○ 질적성장

- 회원 대상으로 연구논문의 질적 성장을 위한 이론, 연구방법, 통계적 분석, 논문
작성 세미나등 지속적인 탐구
- 출판과 편집 및 심사기준을 위한 출판위원, 심사위원 워크숍 계속 개최

○ 국제적 기준에 의거한 체제정비

1) ISSN등록(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)

1982년 ISSN등록(ISSN:0378-004X)

1995년 9월호(제25권 제3호)부터 학회지 앞표지 우측상단에 표기

2001년 10월호(제31권 제5호)ISSN변경 (ISSN:1598-2874)

2) 국제규격 준수

2003년부터 포맷변경(표지,속지,체제)

2003년 2월호부터 학회지 인쇄용지를 Acid-free Paper사용

투고요령 전면 개정(2001년 4월)

- 참고문헌, 표, 그림 영문표기
- 영문초록 200자 이내
- key word를 MeSH 용어로 표기
- 참고문헌의 잡지명을 MEDLINE의 규정에 의한 약어사용

3)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

- 1998년부터 학술지 평가신청을 준비
- 1999년 9월 8일 등재후보학술지에 등재
- 2001년 12월 19일 등재학술지에 등재, 계속평가대상 학술지

4)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

- 1999년 7월 회원학회로 가입

○ 정보화

- 창간호부터 전체 게재 논문을 인터넷 검색가능 파일로 전환
- 2000년 11월 22일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의 KoreaMed에 등재됨으로서 검색엔진을 통한 온라인 논문 검색 가능 - MEDLINE/PubMed 의 PubMed LinkOut을 위한 기본준비가 완료됨
- 2003년 12월 대한간호학회지의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논문검색서비스 제공(창간호부터 현재까지 영문초록, 전문검색가능)

○ 국제화 추진

- 학회지 게재논문의 국제 규격 준수와 함께 영문판을 1999년부터 발간하여 학회지의 국제화 추진
- 2003년 9월 메드라인에 등재신청서 제출, 2004년 6월 29일 등재 통보받음

3.

○ 투고 논문 질적성장을 위한 노력

퍼브메드에 2003년 발간 논문부터 등재되었고, 2004년 6월 29일 통고 받았으므로 2004년 이후 사업과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.

1) 대한간호학회의 노력

- 영문 홈페이지 제작(2005년)
- 통계 전문 심사위원 위촉(2004년)
- 원어민 영문 출판위원장 위촉(2004년)
- 원어민 영문초록 심사위원 위촉
-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 도입(2005. 10. 12)
- 회원 DB 주요 사항 입력(2005년)

2) 출판위원 및 심사위원 워크숍(2004. 6. 28/2005. 12. 14)

- 2003년 논문심사결과 분석
- 학술지 질 제고를 위한 방안
- 2004-2005년도 학술지 발전방안
- 대한간호학회지 게재 논문 키워드(MeSH) 분석

3) 논문 작성 세미나 (2004. 12. 14/ 2005. 7. 8)

- 간호학적 논문 방향설정을 위한 방안 모색
- 국내외 간호학관련 학회지 편집분석
- 간호학적 지식체 유형에 따른 학회지 논문분석
- 영문 논문작성 개요
- 임상연구 영어논문 작성법

○ 동일논문, 유사논문의 이중게재 판별을 위한 제도적 보완

- 회원대상 안내문 작성 배포(2004년 10월 31일)
- 투고규정에 관련 조항 삽입(2005년 9월)
- 회원, 심사위원 및 출판위원의 관심 촉구

○ 퍼브메드 등재확정 공문수신 직후 후속 조치

- 1) 2004년 7월 12일, KoreaMed 정보관리팀에서 관련 단체에 PubMed에 등재됨을 알리는 축하메시지와 홍보메세지 전달.

- 2) 2004년 7월 19일 학회 홈페이지(www.kan.or.kr) 첫화면에 MEDLIN 등재 관련 pop-up창을 띄워놓음.
- 3) 2004년 7월 22일 간협신보 공지 - 대한간호학회지가 MEDLINE에 등재되다!
- 4) 2004년 8월 16일 메드라인으로 부터 ftp account가 메일로 옵니다.
 From: "Frost, Elizabeth (NIH/NLM/NCBI)" <frost@ncbi.nlm.nih.gov>
 To: ""???"" <yjpark@korea.ac.kr>
 Sent: Monday, August 16, 2004 10:36 PM
 Subject: Approval: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Taehan Kanho Hakhoe chi
- 5) 2004년 8월 17일 의편협(이윤혜) 도움으로 - PubMed loader report가 시작됨.
- 6) 2004년 8월 27일 임시총회 - 회원 대상 등재와 관련한 학회지 발전사 홍보
- 7) 학회지에 등재 학술지 표기, 학술진흥재단에 통보
- 8) 인쇄용지에 대한 질의회신 : 출판사에 재차 확인하여 중성지 사용중임을 메드라인에 통보함.

○ 퍼브메드 등재확정후 회원, 심사위원, 출판위원회간의 의견교환 내용

- 1) 논문 심사위원의 공정성과 질적 향상 재고 필요함
- 2) 연구 논문가운데 ‘분할 연구’와 ‘중복 연구’의 경우 학회지에 게재하기 어렵다고 할 경우, ‘분할 연구’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.
- 3) 통계결과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사례 등을 통해서 통계분석에 대한 심사를 더 정확하고 꼼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다.
- 4) 이미 게재되었다고 해도 통계 오류나 신뢰도 문제가 있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 연구자에게 사후 패널티를 주는 제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. 사후 패널티 제도를 적용할 경우 이를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추후관리체계가 필요하다.
- 5) 질적 연구를 심사하는 심사평가지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개발해서 심사자간에 심사 결과의 많은 차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. 더불어서 양적 연구 심사평가지 기준도 더 표준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 같다.

- 6) 심사위원이 심사평을 기술할 때 연구자에게 일방적이고 수직적 관계이기 보다는 공정한 자세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하고, 게재 불가능으로 평가하였다면 연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구체적 지적이 필요하다.
- 7) 논문 심사나 연구 논문을 쓸 경우에 “결론” 부분에서 심사자와 연구자에 따라서 결론 부분에 결론을 간단히 쓰는 경우도 있고 결과 요약과 제언을 쓰는 경우도 있다. 따라서 학회에서 연구 결론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마련해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.
- 8) 구체적인 심사규정 지침안을 제시해주는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. 심사위원 자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워크숍 과정을 지속적으로 갖는 것도 필요하다. 심사위원의 논리적 심사과정이 필수적이다.
- 9) 참고문헌양식을 더 정확히 제시해서 바르게 연구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. 향후 편집관련 전문편집간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예산확보가 되기 이전까지는 아직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해야할 실정이다.
- 10) 논문 key word와 관련하여 MeSH 사용과 관련되어서 MeSH에 제시된 간호 관련 용어가 너무 제한적이고, 한국말로 쓸 경우 직역해서 써야하는지 다른 표현으로 써도 되는 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MeSH에서 제시된 개념을 기준으로 쓰고 직역하여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.

○ 투고 논문수 증가

- 1) 2003년 전체 215편의 논문이 투고되었다.
- 2) 2004년 전체 246편의 논문(국문 195, 영문 51)이 투고되었고,
- 3) 2005년 전체 249편(국문 214, 영문 35)이 투고되었다.

○ 향후 발전 방안

- 1) 영문학회지 독립
- 2) SC1 등재 노력
- 3) 기타